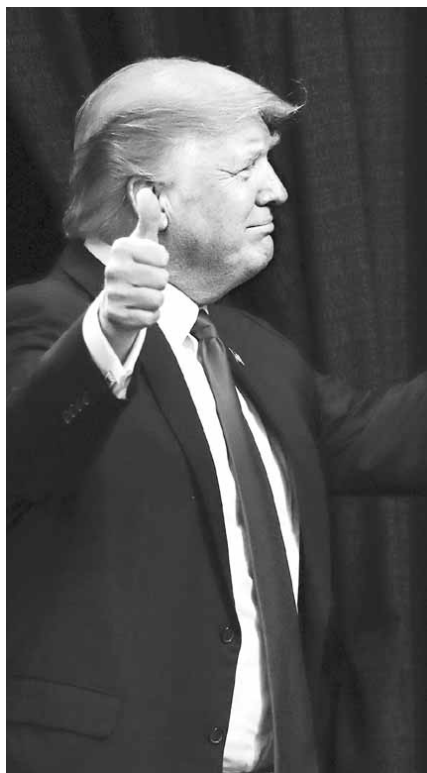


힐러리, 민주 대선 후보 성큼 트럼프, 자력 후보 희망 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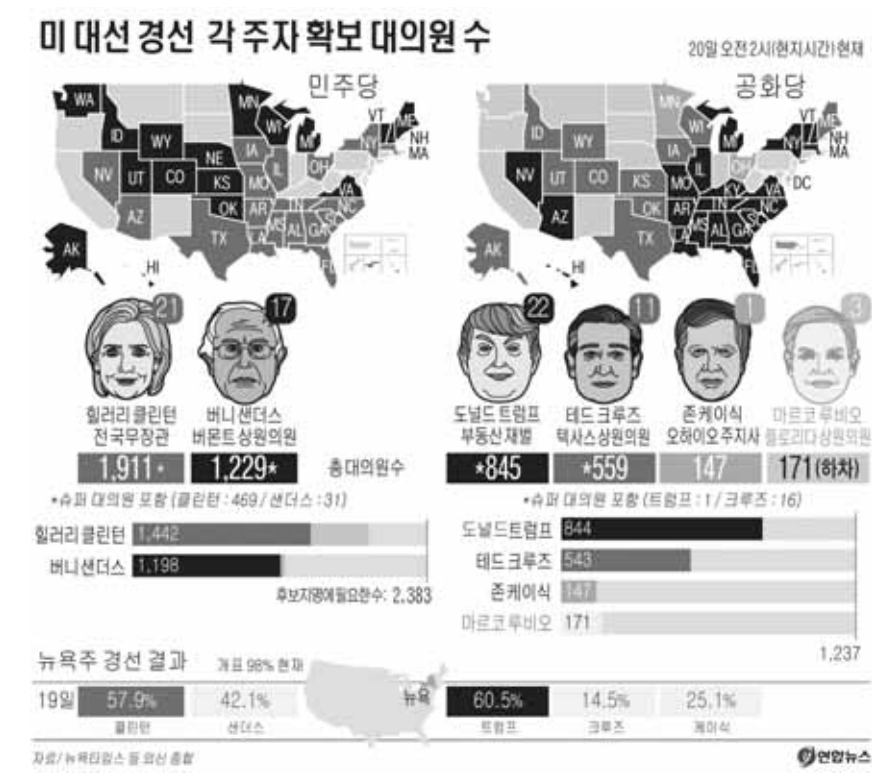
트럼프

美 대선 뉴욕 경선 승리...힐러리 8부 능선 넘어·트럼프는 불안한 1위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경선 선두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도널드 트럼프가 18일(현지시간) 분수령으로 꼽히는 뉴욕 경선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클린턴 전 장관은 당 대선 후보로 지명되는데 필요한 대의원 과반 확보를 위한 8부 능선에 올라섰으며, 트럼프 역시 선두를 더욱 굳건히 하면서 자력으로 당 주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다시 열었다는 관측이 나왔다.

민주당은 87%가 개표된 이날 오후 11시 현재 클린턴 전 장관이 57.3%의 득표율을 얻어 42.7%에 그친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을 크게 이겼다.

이날 CNN 등의 출구조사에서는 두 후



힐러리

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여전하다. 뉴욕 주에 걸린 대의원 95명을 대부분 쟁김으로써 후보 대의원이 800명을 훌쩍 넘어 매직넘버에 상당히 접근하기는 했지만, 남은 15개 주에서도 이와 같은 선전을 펼치지 않는다면 과반 확보에는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트럼프가 오는 6월 7일 경선까지 과반을 확보하면 그는 7월 전당대회에서 그대로 당 대선 후보로 지명된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결선투표 격인 경쟁 전당대회가 열리게 되며 트럼프의 후보 지명 가능성은 상당히 작아진다. 트럼프의 대선 후보 지명에 반대해온 당 수뇌부가 이 전대를 통해 트럼프를 지지않고 크루즈 의원이나 제3의 후보를 주자로 옹립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어서다. /연합뉴스



연쇄 강진으로 산사태가 발생한 일본 구마모토현 미나미야소에서 20일 구조대원들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날 3명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47명으로 늘었다. /연합뉴스

‘일본 지진’ 7월 중·참의원 선거 변수로

소비세 인상 보류 목소리도

일본 구마모토(熊本)현을 강타한 연쇄 지진이 일본 정치권을 흔드는 변수로 부상했다.

우선 중·참의원 동시 선거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무거워지고 있으며 소비세 인상을 보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올해 여름 예정된 참의원 선거 때 중의원 선거까지 함께하는 구상을 보류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20일 보도했다.

지진 피해를 본 구마모토현에서는 참의원 선거를 연기조차 쉽지 않으며 이런 상황에서 중의원을 해산해 동시 선거를 하는 것은 현지 지방자치단체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동시 선거를 강행하는 것은 재해 복구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다. 1995년 한신·아와지(阪神·淡路) 대지진(일명 고베 대지진)이나 2011년 동일본대지진 후에 피해 지역의 자치단체장 선거가 연기된 사례도 있다.

반면 총리는 애초에 동시 선거로 야당의 후보 단일화 구상을 교란하고서 압승을 노릴 것으로 여겨졌으나 구마모토현 연쇄 지진으로 동시 선거를 생각하기 어려워졌다.

아베 총리는 4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8→10%)을 보류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소비세 인상은 당장 지진 피해 지역 주민의 가계 부담을 키우는 일이고 경제 전반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자민당 정조회장은 20일 보도된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소비세율을 1% 포인트만 올려 9%로 하는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구마모토 연쇄 지진을 ‘대지진’으로 규정할지의 문제가 남았으나 소비세 인상을 보류할 명분이 생긴 상황이다. /연합뉴스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 “핵우산 없으면 韓 핵무장 검토해야”

미 상원 인준 청문회서 주장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는 19일(현지시간)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스스로 안보를 위해 자체적인 핵무장에 나서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다.

브룩스 지명자는 이날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주최한 인준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확장억지 개념의 미국의 대 한국 핵우산 공약은 주한미군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했던 1978년 제1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공식화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브룩스 지명자는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위원장이 한국에 더이상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한국이 자체적 핵무기 역량 개발에 나서도록 동기를 부여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한국이 스스로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그것(핵무장)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브룩스 지명자는 이어 “한국이 자체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서려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현 시점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여전히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 도널드(민주·인디애나) 상원의원이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 공약에 변화가 없느냐고 묻자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은 매우 중요하며 위기 시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옵션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브룩스 지명자는 매케인 위원장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기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해 상당한 부담(significant load)을 하고 기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트럼프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제기한 ‘한국 안보 무임승차론’을 일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합뉴스

필리핀 남부서 5.0 지진...인명 피해 없어

15·18일 이어 잇따라 발생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 필리핀에서 또다시 지진이 일어났다.

20일(현지시간) 필리핀 화산지질연구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17분께 필리핀 남부지역 다바오오리엔탈 동북쪽 16km 지점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의 깊이는 102km다.

현지 언론은 유리창이나 문이 흔들리는 정도의 진동으로, 인명 또는 물적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환태평양 조산대는 일본·동남아·뉴질랜드 등 태평양 제도, 북미, 남미의 해안지역을 잇는 고리 모양의 지진·화산대로 최근 잇따라 지진이 발생했다. 지난 14일 일본 구마모토 현에서 규모 6.5, 16일 에콰도르에서 규모 7.8의 강진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해안에서 지난 15일, 남태평양 바누아투에서 18일 각각 규모 5.9의 지진이 일어났다. /연합뉴스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은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중개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양도소득세나 이자소득세가 부담이 되시는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 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도시개발 ☎ 062-383-4987

사업자등록번호 435-87-00319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2461

NPL 물건

NO	사건번호	물건
1	광주 2015타경 11371	모델
2	광주 2015타경 17416	근린상가
3	순천 2015타경 14423	근린생활주택
4	목포 2015타경 1551	오피스텔(주거)
5	목포 2015타경 8910[1][2]	단독주택
6	순천 2014타경 9356	근린상가
7	순천 2015타경 14058	근린상가
8	순천 2015타경 15976	근린생활주택
9	목포 2015타경 10570 [1][2][3]	근린상가
10	목포 2015타경 9821	근린상가
11	목포 2015타경 12278	아파트

믿음이가는 대부 금융사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

등록번호 2016-광주서구-0021 서구청 경제과 360-7162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지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빛, 고통의 시작입니다 -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

☎ 062-382-4987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79번길